

‘농아인밴드’ 세상의 편견 깨뜨리다

한파가 맹위를 떨친 지난 2월 19일 오후,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박전해) 입구에 들어서자 드럼과 기타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복지관 5층 대강당에는 5명의 밴드 단원들이 악기 연습에 여념이 없었다. 모두 청각언어장애인이다.

비록 남들처럼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프로 못지 않았다.

전국에서 유일한 농아인들로 구성된 ‘라운제나’ 밴드다. ‘라운제나’는 ‘기쁜 우리, 즐거운 우리’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음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기쁨과 즐거움을 공유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밴드 단원은 모두 8명. 남자 2명, 여자 6명으로 20대 대학생부터 50대 직장인까지 나이도, 직업도 다양하다.

이날 연습에는 부득이 개인 사정으로 빠진 3명을 제외한 5명이 참여했다.

농아인 밴드가 결성된 것은 지난 2007년 11월 무렵. 복지관 측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드문 농아인에게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손소리빛’ 연주단을 창단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가시밭길이었다. 변변한 악기조차 없었다. 물론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이도 없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창단 1년도 채 안 돼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기회는 다시 찾아왔다. 지난 2009년 4월 월드비전에 서 드럼을 비롯해 기타, 건반

진동은 느낄 수 있어 드럼을 중심으로 호흡을 맞췄다.

연습은 칠판에 그려진 장단을 보며 숫자를 되내며 자신의 순서가 오면 악기를 연주하는 방식이다.

수를 받고 그만 울컥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손소리빛 연주단은 이듬해인 2010년 2월 지금의 라운제나 밴드로 이름을 바꿨다.

현재 연극동아리인 극단 ‘청강’과 함께 ‘가온누리장애인예술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운제나 밴드는 그동안 공연을 통해 대중가요인 ‘나는 문제없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 의미 있는 곡을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줬다.

올해 공연은 오는 6월 말이나 7월초에 열릴 예정이다.

농아인은 음악을 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당당히 세상 밖으로 나온 라운제나 밴드. 희망을 연주하는 이들의 도전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전국 유일 청각언어장애인밴드 ‘라운제나’

올 공연 앞뒤 맹연습...희망의 연주로 감동

등 악기와 앰프시설을 지원해 준 것이다.

이후 새롭게 의기투합한 단원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본격적으로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악기에 재미를 붙인 단원들은 질뿔하면 새벽까지 남아 개인 연습에 몰두했다. 비록 소리는 들지 못해도

밴드에서 베이스기타를 맡아 4년째 활동 중인 홍금희씨(40)는 아직도 첫 공연을 잊지 못한다.

“2009년 9월 전도수화경연대회 손짓사랑수화제 때 처음으로 찬조 공연을 펼쳤는데 제주화생문화원 대극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뜨거운 박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발굴

제주도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 조사를 벌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올해 신규 대상자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욕구를 파악한 후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대상은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적 위험에 노출돼 정기적으로 안전 확인이 필요하거나 소득이나 건강, 주거 등 생활환경이 열악해 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독거노인 현황 조사는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47년생과 독거노인원스톱센터에 등록된 기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한편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노인돌보미 132명이 독거노인 355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노인돌봄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제주 자원봉사자 10만명 확대
시설 탐방-제주순복음중앙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소식 4·5면
베트남에 김만덕학교 문 연다
사회복지시설도 빈익빈부익부
- 오피니언 6면
칼럼 · 기고
- 특집 7면
제주사회복지협의회 25년사 편찬-하현재와 미래
- 기획 8면
이웃사랑 자원봉사 - 건병도우미봉사회 등

디자인 열림

DESIGN YEOLL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3동 2730-4번지
Tel, 064-746-0775 Fax, 064-746-0774

열린 시각 열린 공간 열린 사고

“열림이 생각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주 자원봉사자 10만명으로 확대

도, 나눔문화 확산 위해 내년까지 3만명 모집

자원봉사 마일리지 도입 기념메달 수여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봉사 활동 참여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집중 육성해 내년까지 전체 자원봉사 수를 1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 자원봉사자 수는 7만여명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12.2%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올해 1만6000명, 내년 1만400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제주도는 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도민이 흥미를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진화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가족의 의미와 자원봉사의 보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가족봉사 프로그램 등을 행정시와 자원봉사센터 등과 함께 운영한다.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학교와 리더 양성교실 등을 운영하고 간병인 중급·리더 과정, 도배 양성자 과정 등 전문봉사자 양성 아카데미도 연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봉사시간에 따라 참가자들에게 병·의원, 음식점, 할인점 등 가맹점 할인혜택을 주고 우수 봉사자와 최다 시간 봉사자에게는 기념메달을, 초·중·고교 학생과 대학생에게는 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한다.

제주도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대비한 단체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도민은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www.1365.go.kr)과 제주도나 행정시 자원봉사센터로 신청, 등록하면 된다.

시민 13% 자원봉사자 만든다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올 5만5000명으로 확대

제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상호)는 올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연말까지 전체 자원봉사자 수를 5만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인원이다.

2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는 제주도 전체 인구의 11%인 4만5500여명에 이른다.

현재 512개인 봉사단체도

600개로 확대, 범시민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자원봉사센터는 오는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법규 지키기, 담배꽂초 버리지 않기 등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벌이고 전문 자원봉사자를 발굴해 행사 지원에 나선다.

또 노인 돌보미 90명을 확보해 혼자 사는 노인 2000여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밑반찬 지원 등 복지사업을

펼친다.

농협과 마사회, 공항공사 등 도내 기관·단체와 연계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벌이고 생필품 지원,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학생들의 자원봉사 지면 확대를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자원봉사 교육도 실시한다.

이상호 제주도자원봉사센터장은 “제주의 밝은 미래와 행복한 제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과 남을 위한 희망의 투자인 자원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시노인대학 졸업식

제주시노인대학(학장 조문부)은 2월 13일 제주시노인회 다목적실에서 제10기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78명이 영광의 학사모를 쓰고 빛나는 졸업장을 받았다.

제주문인협회신임 회장에 김길웅씨

시인이자 수필가로 제주사회복지신문 편집위원인 김길웅씨



(70·사진)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회 회장인 김길웅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제주 문학의 집 2층 회의실에서 '2012년 정기총회 및 제55집 출판기념회'를 갖고 신임 회장에 김씨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김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문협이 문인 친목 단체라는 기본 역할이나 기능에 안주할 게 아니라 창작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르의 벽을 허물고 격의 없이 대화하는 문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등교장 출신인 김 신임 회장은 제주수필문학회·동인맥(脈)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제민일보 ‘아침을 열며’ 필진이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발행하는 제주사회복지신문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문학 대상, 한국문인상 본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수필집으로는 ‘내 마음 속의 부처님’, ‘삶의 뒤안에 내리는 햇살’, ‘떠난 혹은 떠나는 것들 속의 나’ 등을 발간했다. 시집으로는 ‘여백’, ‘다시 살아나는 흔적은 아름답다’, ‘긍정의 한 줄’, ‘틈’ 등을 펴냈다.

희망키움통장 올해 신규 가입자 모집

3·9월 기초수급자 대상

제주도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한 ‘희망키움통장’의 올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모집은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수급자이다.

지난 2010년 시작된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가 일해서 번 돈 가운데 일부를 적립하면 정부와 민간 지원금을 매칭,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 목돈마련 지원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98만원

인 3인 가구의 경우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26만원과 민간지원금(매칭) 10만원이 더해져 3년 후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1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탈수급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는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행정시는 신청 가구의 자립의지, 적립·사용 계획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장애인 생산품 매출액 증가

작년 23억4800여만원

전년 대비 14% 증가

제주지역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각종 제품의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연간 매출액은 23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매출액 20억5200만원보다 14.4% 증가했다.

2009년도 매출액은 16억9700만원이었다.

이처럼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의 품질이 향상된 데다 공공기관과 시민들의 제품 구입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를 주는 복지시설로 현재 제주지역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준강장애인근로센터를 비롯해 일배움터, 길직업재활센터, 혜정원, 한라원 등 5개소로 모두 200여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사무용지, 장갑, 종이컵, 상패, 공예품, 화훼류, 빵, 물수건 등 다양하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수요와 일반인들의 구매가 늘고 있는 편”이라며 “비슷한 품질이나 가격이라면 장애인 생산제품을 애용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들 시설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품질이 개선되고 꾸준한 홍보로 인해 장애인 생산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생산

여성 일자리 1300개 창출

제주도는 올해 8억5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 일자리 1300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여성취업지원 전문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직업상담 및 취업설계, 직업훈련, 새일여성인턴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직업훈련생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와 밑반찬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직업교육 훈련 과정과 생활문화 교양강좌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업훈련과 사회문화과정을 운영한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자기 이해와 진로개발, 취업캠프, 개인별 커리어컨설팅, 맞춤형 취업 특강 등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회복지협의회 2012년 1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430,000	430,000
난치병환아후원	70,000	0
자원봉사후원	1,055,000	1,055,000
복지사업후원	1,010,000	4,128,000
푸드마켓후원	2,410,000	2,000,00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설탐방

(52)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제공

‘뜨레모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뜻의 제주 방언으로 사회복지법인 섬김의 집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 이하 복지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이름이다.

복지관이 추구하는 지향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섬김과 나눔, 사랑’을 슬로건을 내건 복지관은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4년 8월 문을 열었다.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을 지난 2월 15일 찾았다.



차별화된 노인주간보호사업 ‘호응’

어린이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다채’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소외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됐다.

지하 1층에는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1층에는 아동보육실과 기능교실 등이 설치됐다. 2층에는 상담실과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사무실 등이, 3층에는 다목적강당, 교육실, 기능교실 등이 들어섰다.

복지관은 유아부터 초등학교, 성인은 물론 노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건강, 문화교실 등을 연중 운영한다.

주요 사업은 ▲교육문화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보조 ▲가족복지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문화사업은 다시 아동과 성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초등학교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보면 수학, 창의역사논술, 세계

사, 중국어, 한자, 미술, 피아노, 종이접기, 발레, 드럼, 플루트, 기타 등 다양하다.

교육 프로그램도 다채롭지만 무엇보다 저렴한 수강료가 강점이다. 대부분 월 3~5만원 수준이다.

기초수급자 가정 자녀는 수강료가 무료이다. 차상위계층은 50% 할인된다.

수강료가 싸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알차고 내실 있게 수업을 진행한다.

성인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기타, 요가교실이 있다. 도예공방교실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보호사업 가운데 하나인 노인주간보호사업은 복지관이 내세우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꼽힌다.

경증 치매 증세를 앓거나 주간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년생활을 돕기 위해 침술,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는 물론 뮤지컬, 마상쇼 관람 등 다양한 문화체험 및 취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주간보호실은 월~금요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토요일엔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복지관 김효선 과장은 “우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주간보호사업 정원 30명이 꽉 찰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757-9119



만5세 · 0~2세 보육료 지원

이달부터 부모 소득 관계없이 제공

올해 3월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5세 아동을 둔 부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학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의 영·유아도 보육료를 매달 28만6000원부터 39만4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입되는 만 5세 누리과정과 만0~2세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및 보육료 신청 접수가 2월부터 시작됐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아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대상은 2006년 1월

1일~12월31일 태어난 2006년생 만 5세아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만 3·4세아의 경우 현행처럼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만 3·4세아는 2013년부터 누리과정을 실시해 전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및 만 0~2세아는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복지로 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결제하거나 인터넷이나 ARS를 이용해도 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도 된다.

제주시, 올해 지역아동센터에 30억 지원

제주시는 올해 지역아동센터에 시설 운영과 아동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30억2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지역 42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1120여명에게 학습 프로그램과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주5일 수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달 안에 지역아동센터의 절반 이상을 토요일분 지역아동센터로 지정하고 거점형 및 특

수목적형 센터 4곳도 지정할 예정이다.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식 단가 지원비는 종전 끼니당 3000원에서 올해부터 350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2단계로 구분했던 시설운영 지원비도 5단계로 세분화해 최고 465만원을 지원한다. 난방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도 적기에 지원해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도내 심야약국6곳 지정 운영

제주에서 심야시간대에도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문을 여는 심야약국 6개소를 지정, 지난 2월 15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심야 약국은 제주시 화북동 화북주공아파트 입구 맞은편에 위치한 새희망약국, 연동 옛 종합시장내 부부약국, 삼도1동 남문사거리 전자랜드 제주점 인근에 위치한 새우리약국, 서귀포시 서홍동 서귀포시보건소 앞에 있는 우리약국, 성산을 고성리 성산농협 인근 동남약국, 한림읍 한림리 세창약국이다.

제주도는 심야 약국에 야간당직비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별로 심야 약국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귀난치성 환자 교통비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 회귀난치성 질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도외 진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료 등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백혈병, 만성신부전, 혈우병, 파킨슨병, 면역결핍증 등 107종의 회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899명과 월남전에 참전해 후두암, 폐암, 당뇨 등 35종의 질환을 앓고 있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834명 등 모두 1742명이다.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면 대도시 전문병원 진료를 받은 후 항공료 또는 선박 이용료 영수증과 진료 영수증을,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보훈병원 검진안내문을 첨부해 제주시 사회복지과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베트남에 김만덕 학교 문 연다

기념사업회, 칸호아제주초교·번푸만덕중 건립

총 13억5000만원 투입...기부·나눔정신 기려

베트남에 제주 출신 의인(義人) 김만덕(1739~1812)의 나눔정신을 기리는 만덕 학교가 문을 연다.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는 베트남 칸호아성 캄란 현지역 8760㎡에 20개 학급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칸호아 제주초등학교'를 완공, 2월 28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만덕기념사업회 대표단과 제주도, 도교육청, 제주한라초등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만덕 기념 조형물 제막식이 함께 열렸다.

칸호아 제주초등학교와 한

라초등학교의 자매결연 협약도 이뤄졌다.

기념사업회는 또 베트남 푸토성 비엠티치 번푸구 1만 1900㎡에 18개 학급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번푸 만덕중학교'를 3월 말 완공할 계획이다.

4월 열리는 준공식에서 번푸 만덕중학교와 제주제일중학교가 자매결연을 맺는다.

기념사업회는 칸호아 제주초등학교 건립 사업에 4억 5000만원, 번푸 만덕중학교 건립 사업에 9억원을 지원했으며, 학교 부지는 베트남 정부가 제공했다.

이들 학교는 준공식 이후



칸호아성과 푸토성에 각각 기부된다.

기념사업회는 이들 학교가 일류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용품과 컴퓨터 등을 지원하고 의료봉사단도 파견할 예정이다.

특히 칸호아 제주초등학교에는 내년 사단법인 위스타 운동본부와 함께 '김만덕 위스타트센터'를 개설, 학생과

학부모 등 지역민을 위한 종합적인 보호관리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만덕은 조선 정조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대기근으로 굶주리던 제주도민을 구휼한 여성 거상이다.

제주도는 김만덕의 기부정신을 기려 김만덕상을 제정해 수여하는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월드비전 ‘스키캠’ 운영

월드비전 제주지부 제주가정개발센터(지부장 김관호)는 중학교 2학년에 진학하는 저소득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간 전북 무주스키장에서 스키캠프를 실시했다.

스키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전문강사로부터 스키를 타는 법을 배운 후 서툰 솜씨이지만 즐겁게 스키를 타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었다.

제주가정개발센터는 매년 중학교 2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키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김관호 지부장은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겨울 레포츠인 스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스키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마/당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계란 기탁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대표 이육기)은 지난 1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웰빙계란 6000개(200판)를 기탁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날 후원받은 계란을 제주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와 도내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했다.

계란을 전달받은 노인들은 뜻밖의 선물에 눈시울을 붉히면서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일배움터, 원예·도예체험교실 운영



일배움터는 도민을 대상으로 원예 및 도예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일배움터는 비장애인이 원예와 도예체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나 기관은 일배움터(723-9103)로 문의하면 된다.

체험교실 운영을 통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사용된다.

제일지역아동센터, 행복바자회 개최

제일 지역아동센터(원장 박영식)는 지난 1월 31일 행복 바자회를 개최했다.

제일 지역아동센터는 매달 열리는 바자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굿네이버스를 통해 월 3만원씩 미얀마에 있는 노유사 이해큐지역 아동에게 기부하고 있다.



제일지역아동센터는 센터 아동들이 지역에서 받은 사랑만큼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바자회를 시작했으며,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장애아동 생태치료 교육 운영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발달장애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재활 로드맵을 마련, 맞춤형 생태치료 교육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생태치료 교육은 자연생태 환경을 통해 어린이의 생태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치료교육 프로그램이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삶, 앓, 관계, 감성을 테마로 장애아동에게 아이다움을 일깨우고 스스로 삶의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름을 오르며 나무, 잎, 돌 등 자연이 선물한 재료를 이용해 잡자리, 나비 등 나만의 작



품을 만들고 예절과 규칙을 배우기 위해 전통무예를 익히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복지관 아동청소년지원팀은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에 생태치료 교육사업을 널리 보급하는 한편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족캠프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남아동복지센터, 난타 공연



제남아동복지센터(원장 이상준)는 2월 13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에서 난타 공연을 펼쳤다.

제남아동복지센터 아동들로 구성된 제남 두드림난타팀은 이날 신나고 흥겨운 난타 공연으로 음악회의 오프닝 무대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제주CBS 창립 11주년을 기념하고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장애인부모회,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회장 한봉금)는 올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 장애아 돌보미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이론 30시간, 실습 10시간 등 40시간으로 진행됐다. 장애인부모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60여명의 돌보미를 양성했다. 이들은 장애아의 일상생활을 돕고 학습지원, 신변처리 보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사회복지시설도 ‘빈익빈 부익부’

도내 206곳 지난해 후원금품 82억여원 받아
노인·장애인시설에 몰려...일부 시설은 0원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크고 이름이 알려진 사회복지시설에는 후원금품이 많이 접수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일부 시설은 지난해 단 한 건의 후원금품도 받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시설 239곳 가운데 206곳이 지난해 연간 후원금 56억9400만원, 후원물품 21억1700만원, 결연금 4억8700만원 등 모두 82억9800만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단 한 건의 후원금품도 받지 못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기업 등이 널리 알려진 곳이나 종교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주로 후원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곳은 외면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설별 지난해 후원금품 수입을 보면 노인시설(61곳)이 29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애인시설(38곳) 18억4500만원, 아동시설(70곳) 17억1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정실질환자시설(3곳)과 부랑·노숙인시설(3곳)은 각각 9800만원, 8900만원의 후원금품을 받는데 그쳤다.

특히 여성복지시설(15곳)에 접수된 후원금품은 5600만원에 불과했다.

시설 한 곳당 평균 후원금품 수입은 장애인시설(4855만원)과 노인시설(4786만원)이 가장 많았다.

반면 여성복지시설은 시설 한 곳당 373만원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는 사회복지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지난해 연간 후원금품 수입·지출 내용을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2월부터 4월까지 공개한다.

장애인에 사랑의 자장면 선물



스포츠스타봉사단, 탐장복서 나눔봉사

스포츠 스타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함께 하는 사람들’(회장 황영조)이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직접 만든 자장면을 선물했다.

황영조(마라톤), 이진택(높이뛰기), 정재은(태권도) 등 왕년의 스포츠스타들은 2월 18일 제주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 ‘사랑의 금메달 자장면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이날 즉석에서 면을 뽑아 만든 자장면을 장애인 등 300여명에게 대접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우근민 제주지사와 자원봉사자 등 50여명도 함께 참여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봉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은 현역시절에는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면서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줬고 은퇴해서는 자원봉사로 국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은 지난 1998년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팬들과 함께 매년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아동양육시설,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짜장면 나누기, 장애인 희망마라톤대회, 연탄나누기 등 나눔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한우협회, 푸드뱅크에 쇠고기 기부

어려운 이웃에 470kg 전달

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김수만)는 지난 2월 8일 제주시 아라동 제주축협한우프라자에서 불우이웃돕기 한우 나눔행사를 가졌다.

한우협회 제주도지회는 이날 쇠고기 1등급 470kg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에 기부했다. 이날 기부한 쇠고기는 도내 혼자 사는 노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됐다.

이번 행사는 소 값 하락으로 한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 어려운 이웃을 돕



기 위해 마련된 것이어서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김수만 한우협회 도지회장은 “산지 소값 하락으로 한우농가들이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 보자는 의미로 한우고기를 전달하게 됐다”며 “올해는 우리 한우농가와 함께 역경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사업 개강식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2월 20일 복지관 4층 강당에서 2012년 다문화사업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어우러지는 우리의 꿈-드림원(Dream One)’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개강식에는 제주시 한림읍과 애월읍, 한경면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 여성 40여명이 참석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다문화사업을 통해 언어소통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어배움터와 운전면허, 뷰티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워킹맘, 문화공연 및 영상창작 동아리반 등을 운영한다.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CAP 간담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2월 17일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및 학교폭력담당자를 대상으로 CAP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CAP 프로그램 등의 소개를 시작으로 2011년 CAP 서비스 실적 분석과 함께 CAP프로그램에 대한 각 학교의 평가 및 제언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집안이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모자가정 주거환경개선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운호)은 2월 12일 도내 한 모자가정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다.

이 사업에는 ‘러브하우스 반디’ 봉사단 단원들과 제주대학교 시설과 직원들이 참여해 도배를 하고 장판을 교체해 줬다.

또 집안 곳곳을 수리하고 청소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주거환경 개선 봉사에 참여한 양철영씨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돕겠다”고 말했다.

수혜자인 모자가정의 어머니는 “그동안 싱크대와 세면대에서 물이 새 여자가 혼자 힘으로 고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잘 고쳐져 고맙다”며 “집안도 새롭게 단장해 주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매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를 선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가파도서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지난 2월 10~11일 도서지역인 가파도를 찾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 기관은 가파도의 각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지역주민들에게 아동학대 실태와 심각성을 알렸다.

또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1577-1399)와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가파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리나라의 꿈나무인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2월 식품 기탁자

▲(주)금강축산유통=육류564kg ▲서문식품=두부387모, 콩나물18봉 ▲김치원=김치60kg ▲(주)삼다유통=삼다수2L 1,800병 ▲빵띠아모=빵35봉 ▲아산재단=쌀200kg ▲성광사=쌀70kg ▲신광식육점=육류100kg ▲이든이네=멸치4.5kg ▲농협제주지역본부=고추장50kg

칼럼

4·11 총선, 매니페스토 운동과 함께 해야



김 범 훈

전 제주정보논설실장

‘서민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향약화 해소와 보편적 복지확대’,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개혁’, ‘남북교류 활성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검찰 개혁’, ‘육아보육 지원강화’.

‘똥구름잡기’ 식 복지공약

이는 지난 2월15일 한국 매니페스토(Manifesto) 실천본부가 오는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발표한 ‘10대 아젠다(Agenda)와 우선순위’로써,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정책공약 의제들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서민층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여야는 유권자의 표를 얻는 최상의 방안으로 이들을 겨냥한 복지공약을 전면에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공약에 들어갈 비용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나갈 지에 대해서도 똥구름잡기 식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야의 복지공약이 거짓말 경쟁을 벌이는 것과 진배없다고 혹평한다. 과연 이런 와중에 정당들이 ‘10대 아젠다’를 어떻게 구체화시켜나갈 지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18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정치공약 이행률이 35.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의 국회의원들 공약을 분석한 결과, 선거 때 내세운 공약 10개 가운데 완료된 것은 4개도 안됐다고 한다. 이들의 거짓공약에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제주도 선관위와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주최로 제주그랜드호텔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이 열렸다. 주요 정당의 제주도당 대표들은 이번 총선이 연고주의 풍

토에서 벗어나 정책중심의 선진 선거문화를 실현해 나갈 것임을 서약했다. 결코 공허한 다짐이 패선 안될 것이다.

모름지기 정치의 사회의 거울이다. 정치의 선진화는 곧 선진사회로 가는 첩경이다. 정치의 선진화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현에서 출발한다. 매니페스토는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약속이다.

정책중심 선거문화 실현해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는 유권자들에게 거짓공약이 아닌 참된 책임공약을 선언함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우리사회는 시민주권시대로 가야한다. 시민주권은 유권자가바르게 깨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여기에 언론의 역할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4·11 총선은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 관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주민주권시대를 가는데 더 없는 멘토이자 동료이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이 매니페스토 운동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다.

기고

자원봉사로 행복한 제주

자원 봉사에 관심 갖는 시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제주시의 미래도 밝다고 본다. 제주 시민 11%인 4만6천여명이 자원봉사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아직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 한해 동안 5천여명이 새로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함으로써 이런 추세라면 얼마 없어 자원봉사 물결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본다.

2억이 훨씬 넘는 미국인들은 50%이상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한다.

미국이 건강한 사회와 경제대국, 세계를 리더하는 강력한 힘이 자원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자원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저 따뜻한 마음과 고귀한 희생 그리고 남을 사랑 할 줄 아는 마음만 있다면 진정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원봉사는 나와 가족이 아닌 ‘우리’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사회를 향한 사랑이며 나눔 운동이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영양제이면서 미래의 희망이다.

또한 글로벌사회를 헤쳐 나가는 이 시대의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두레, 품앗이, 계를 비롯하여 제주의 수눌음이라는 상부상조의 민간공동체가 활발하게 이어져 왔다.

이처럼 이웃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돕는 풍습이 자원봉사인 것이다.

자원봉사는 자기계발의 수단인 동시에 지역과 나라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사회적자원이다.

자원봉사는 남을 위한 일이면서 자신을 위한 일이다.

자원봉사를 통하여 내가 즐겁고 남에게도 행복을 안겨주면서 삶의 활력소와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자원봉사는 자신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이다.

특히 제주의 밝은 미래와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하여 역량을 한데 모아 희망의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현재 제주의 사회는 너무 이해관계와 반목과 질시 속에 빠져있다.

소통을 통한 이해와 배려의 나눔 정신인 자원봉사의 힘으로 극복했으면 한다.

자원봉사하면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다.

제주 청경환경지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가꾸기, 헌혈 및 장기기증, 불우이웃돕기, 국제난민 구호, 관광지 안내, 농촌일손 돕기,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그 활동영역도 매우 많다.

제주시 2천여 공직자들도 오는 3월말까지 자원봉사센터에 모두 가입하고 부서별로 자원봉사 동아리를 구성하여 제주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작은 봉사의 힘이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듯이 자원봉사의 힘이 경쟁력이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길 기대해 본다.



강 철 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기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한 소 미

제주한라대학교 학생

2012년 1월 2일, 나와 가정위탁의 인연이 시작된 날이다.

처음 ‘가정위탁’이라는 말은 나에게 낯설게만 다가왔다. 하지만 아이들을 직접 만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직접 전달하고 함께 나누는 실천을 하면서 어느새 ‘가족’이라는 말처럼 따뜻함으로 다가와 있었다. 특히 설명절을 맞이하면서 만난 아이들이었기에 따뜻함이 두 배로 커진 기분이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설명절은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덕담을 나누는 날로만 기억에 남아있었다. 그 것이 내가 알고 있고 경험했던 설명절의 전부이다. 하지만 이번 설은 나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사랑의 실

천’을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설명절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정(情) 나눔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 삼삼오오 모여 웃음으로 만들어진 ‘사랑의 김치’와 함께 따뜻한 이웃들이 후원해 준 쌀과 생필품, 상품권 등 우리는 제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따뜻한 정(情)을 나누었다. 엄마의 손맛처럼 맛있는 김치는 아니지만, 아이들과 함께 한 따뜻한 정(情)이 양념으로 스며든 김치였기 때문에, 비록 큰 선물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웃들이 나눠준 사랑이었기에, 모두에겐 너무나 소중한 다.

정(情)을 나눠주기 위해 첫 방문을 했을 때, 해맑게 웃으며 씩씩하게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고 크게 인사를 하던 아이가 생각난다. 쭈뼛쭈뼛 서서 어색하게 인사하던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그 아이의 미소가 너무나 고마웠다. 물론 내가 만나 본 아이들이 모두 밝은 것만은 아니었다.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의기소침해 있는 아이들도, 쭈뼛쭈뼛 서 있기만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손을 잡으며 따뜻한 사랑을 전달해 주고 싶었다. 약 일주일간의 정(情) 나눔 활동을 하면서 만난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얻고 느낄 수 있었다. 무거운 후원 물품을 전달하느라 몸이 힘들고 아직도 팔의 쓰림이 남아있지만, 물품을 받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미소로 인해 나의 행복의 무게가 더해지고 따뜻한 정(情)이 가슴 속 깊이까지 스며들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저 버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소중히 키워가는 아이들이 있다. 내가 만난 아이들도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그 모습이 내 머리 속에 보석같이 빛나고 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힘든 직업’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힘은 들지만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그 뿌듯함, 그리고 나 하나가 누군가의 큰 위로가 된다는 생각이 나를 사회복지사의 길로 계속 이끌고 있다.

■ 제주사회복지협의회 25년사 편찬 - (하)현재와 미래

“사회복지 현장과 소통 강화해야”

전문가 좌담회에서 사회복지계 대변자 역할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 말 창립 25주년을 맞아 협의회가 걸어온 역사를 되돌아보고 오늘의 현실을 진단함과 동시에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 10명을 초청, 좌담회를 가졌다.

다음은 지난 1월 27일 발간된 제주사회복지협의회 25년사 책자에 실린 좌담회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요지.

▲**허철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계장=“협의회가 민간 사회복지계의 구심점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정책 개발과 건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협의회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처우 개선과 시설 기능 보강 등에 대해 먼저 건의하고 제안함으로써 민관 가교역할을 해야 합니다.”

▲**임태봉**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장=“협의회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협의·조정하는 역할과 조사분석을 통한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대변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권리옹호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박광수** 창암재활원장=“협의회가 그동안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와 소통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협의회가 사회복지계 공통의 문제에 대해 앞장서서 조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협의회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고수희** 평안전문요양원 부원장=“현실적으로 협의회의 ‘관’ 의존도가 높다보니 정작 필요할 때 ‘민’의 입장을 반영해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관’ 의존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사회복지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협의회가 협의·조정을 통해 사회복지계의 균형과 발전을 이루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정책개발에 관여함으로써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최영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 원장=“선거철이나 사회복지 이슈가 생겼을 때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성명서를 내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했습니다.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장 실무자들이 모여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또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 단체 등 전체를 감싸안고 그들이 정말 아파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러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조성태** 아리종합사회복지관장=“협의회 내에 각 사회복지직능단체별로 분과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협의회의 협의·조정과 의사소통의 기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직들을 총괄적으로 묶어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연합회’ 같은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미애** 아리종합사회복지관 부장=“예나 지금이나 협의회는 민간 사회복지계의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복지계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 등을 통해 사회복지계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랍니다. 조사연구사업과 관련해 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말고 정책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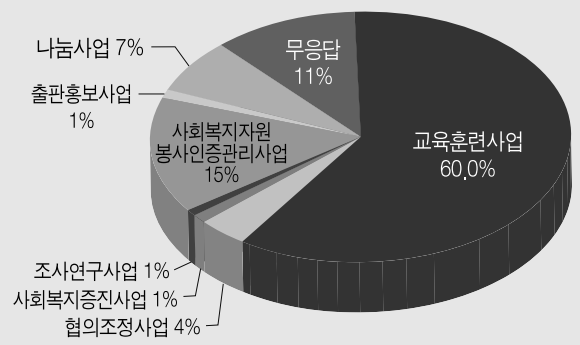
▲**김지선** 전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과장=“‘복지제주’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협의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고 협의회 운영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관련 조례 제·개정과 사회복지시설·단체의 지원자 역할은 물론 대도민 복지사업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보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장=“도민복지, 광의의 복지를 좀 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계의 대변자이자 권익 옹호자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등 자생력 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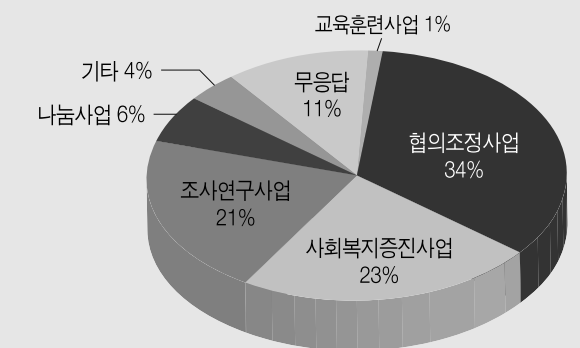
▲**원석철** 전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장=“사회복지의 출발점이 자원봉사인 만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젊은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자원봉사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중·고교나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협의회, 민간 사회복지계 대표”

■ 협의회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은



■ 협의회에서 가장 못하고 있는 사업은



사회복지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제주지역 민간 사회복지계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단체장과 사무국장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이 같이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39%였다.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강점으로는 ‘제주 사회복지의 구심점’이란 응답이 3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관과 사회복지아카데미, 푸드뱅크 등 풍부한 자체 자원’ (31.6%), ‘지역 자원의 창구 역할’ (21.3%),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적 관계 유지’ (10.3%) 등의 순이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약점으로는 26.9%가 ‘사회복지 이슈에 대한 대안 창출 부족’을 꼽았다.

‘기관(직능단체)간 협의조정 능력과 집단토의, 홍보 부족’은 15.5%, ‘조사연구

사업과 사회복지증진사업 미흡’은 11.5%였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60%가 ‘교육훈련사업’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사업’ (15%), ‘나눔사업’ (7%), ‘협의조정사업’ (4%) 등이었다.

가장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협의조정사업’ (34%), ‘사회복지증진사업’ (23%), ‘조사연구사업’ (21%), ‘나눔사업’ (6%)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가장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과 관련해서는 24.2%가 ‘협의조정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을 각각 꼽았다.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은 18.2%, ‘사회복지 대변자 역할’은 6.1%였다.

사회복지협의회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예산의 자생력 확보’란 응답이 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구조조정’ (21%), ‘직원의 전문성 강화’ (19%), ‘조직운영 방식 개선’ (12%)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말 남진열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서 고수희 부원장, 권미애 부장, 김지선 전 협의회 과장, 박광수 원장, 윤보철 관장, 원석철 전 자원봉사연합회장, 임태봉 관장, 조성태 관장, 최영열 원장, 허철훈 계장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제주사회복지협의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연중기획

‘이웃사랑 지원봉사’

(2) 간병도우미봉사회 · 연탄배달봉사

“정성껏 차린 음식 맛있게 드세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정성껏 차려드리는 것 만으로도 매우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2월 20일 오전 10시30분, 제주시 아라동 아라주공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1층 노인정에 들어서자 입맛을 자극하는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다.

아라동지역 노인들의 쉼터이자 사랑방인 노인정 한 칸에 마련된 조리장에는 자원봉사자 10여명이 점심 준비에 한창이었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배식을 맡은 팀은 복지관 소속 ‘간병도우미봉사회’. 매달 넷째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노인정을 찾아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음식을 장만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놀림은 분주했지만 표정은 밝았다.

오늘의 메뉴는 성계국, 흑미밥, 잡채, 제육볶음, 김치 등 5가지. 어르신들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이다.

오전 11시, 배식이 시작되려

면 아직 30분이나 남았는데도 복지관 입구에는 점심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윽고 배식 시간이 되자 한적하던 노인정이 금새 어르신들로 꽉 들어찼다. 한꺼번에 100여명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자리가 없어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정성스런 음식이 가지런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간병도우미봉사회
노인 무료 급식 · 양로원 봉사활동 펼쳐

놓인 식판을 받아든 어르신들은 어린아이처럼 마냥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무료 경로식당을 찾는 노인들은 하루 평균 150여명. 생활이 어렵고 함께 지낼 가족이 없는 외로운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노인정에서 매번 점심식사를 한다는 한 할아버지는 “봉사자들 덕분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 고마울 뿐”이라며 “우리 사회에 아작 남아 있는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간병도우미봉사회는 지난

1997년 1월 창립된 전통 있는 봉사단체다. 현재 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간병도우미봉사회는 무료 급식봉사 외에도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는 이시돌양로원, 넷째주 토요일엔 평화양로원을 찾아 청소도 해 주고 몸을 가누기도 힘든 어르신들의 옷을 갈아입혀 주기도 하고 말벗도 되어 준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부식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간병도우미봉사회는 올해 봉사회 이름을 바꾸려고 계획 중이다. ‘함께’라는 의미의 제주어인 ‘훈디’와 나눔의 뜻을 알리기 위한 ‘나누리’라는 이름을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김희옥 간병도우미봉사회장은 “지금은 간병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봉사회 이름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명칭을 변경하려고 고민 중”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그마한 것이라도 나누면 더 큰 기쁨을 얻는다”고 말했다.



“사랑의 연탄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연탄나눔운동, 저소득 50가구에 연탄 1만장 전달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 10여명 연탄배달

동장군의 기세가 한풀 꺾인 지난 2월 10일 오후 1시,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입구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내 목장갑을 끼고 자원봉사 조끼 위에 상의까지 올라오는 검은색 앞치마를 둘렀다.

나아와 직업은 서로 달랐지만 모인 이유는 같았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려는 것.

궁핍한 살림 탓에 연탄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지역 저소득 가구를 돕고자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이하 연탄나눔운동)과 인터넷언론매체인 ‘제주의 소리’가 마련한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연탄나눔’ 행사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 16명은 이날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화

북동의 저소득 가구 2곳에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첫 연탄배달 목적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송정희씨(40·여) 가구였다. 봉사자들은 구석진 곳에 있는 송씨의 집 골목에 차례로 서서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날랐다.

봉사자 몇몇은 장갑에 연탄가루가 묻은 줄도 모르고 땀을 닦다가 얼굴이 검게 얼룩지기도 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옆 사람이 힘들어 할 때마다 서로 힘을 북돋워 줬다.

한 자원봉사자는 “어려운 이웃들이 이 연탄으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도 절로 따뜻해진다”며 “봉사를 위해 모인 사람들끼리 정도 나눌 수 있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은 도움을 받는 주민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송씨는 “연탄이 아릅답기까지 하다”면서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더 할 말이 없다”고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저소득 2가구에 가구당 200장씩 총 4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연탄 200장이면 가구당 45일 정도는 추위 걱정을 덜 수 있다.



연탄나눔운동은 이날 건입동 4가구에도 연탄 800장을 전달했다. 연탄배달 봉사에는 건입동 새마을부녀회와 미래에셋생명자원봉사대, 청소년 등 봉사자들이 힘을 보탰다.

이번에 연탄나눔운동이 선박을 이용해 제주에 싣고 온 연탄은 모두 1만장으로 이날 화북동과 건입동 6가구를 시작으로 총 50가구에 나눠줄 예정이다. 원기준 연탄나눔운동본부 사

무총장은 “바람의 섬 제주에서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소외된 이웃에게 연탄 한 장에 담긴 우리 사회의 따뜻한 정을 전달하고 진정한 기부와 나눔이 무엇인지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탄나눔운동과 제주의 소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제주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연탄나눔운동을 매년 정례화할 계획이다.

